

##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박 정 은

박 혜 경<sup>†</sup>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 통합 및 분화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 148명이 참가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사이의 통합 및 분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형용사 판단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주관적 안녕감 척도에 답하였다. 연구 결과,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반면, 두 자기 간 통합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 정서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의 통합, 자기의 분화, 공적 자기, 사적 자기, 주관적 안녕감

---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 교신저자 :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Tel : 02-920-7303, Email : hpark@sungshin.ac.kr

최근 주변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행복과 관련된 책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행복마을 만들기(중부매일, 2015년 1월 28일 기사), 행복주택(뉴시스, 2015년 1월 29일 기사) 등 국가 주도의 각종 사업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또한, 행복에 관한 학술 연구들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1;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2; Diener, 1984, 2000;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처럼 행복에 대한 높은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행복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Fromm(1956)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에게 행복은 중요한 삶의 목표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중요한 목표인 만큼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 역시 지속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 당시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었던 Martin Seligman 등이 주축이 되어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는 영역을 탄생시킨 이후(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Sheldon & King, 2001), 인간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Csikszentmihalyi & Seligman, 2000)에 힘입어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구재선, 김의철, 2006; 이재신, 이지혜, 2011; 차경호, 2004; Diener, 1984, 1995, 2000; Oishi & Diener, 2001; Srivastava, Locke, & Bartol, 2001).

#### 주관적 안녕감

행복에 대한 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변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삶에 대한 높은 수

준의 만족, 빈번한 긍정 정서 경험 및 낮은 빈도의 부정 정서 경험을 포괄하는 변수로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리는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다(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그렇다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지위, 수입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일반의 예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광범위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김혜원, 김명소, 2000; Diener & Ryan, 2009). 그 결과 일반의 예상과는 다르게, 연령, 수입, 인종, 교육, 결혼 상태 등을 모두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행복의 개인차 가운데 8-15%만을 설명하였고(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이에 반해 성격 변수들은 행복의 개인차를 52%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 Larsen, 1984).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행복 수준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및 상황적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행복의 개인차를 3%만 설명하였다. 반면, 심리적 변수인 행복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관점은 행복 판단, 즉 삶에 대한 만족도와 회고적으로 측정된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를 18% 설명했으며, 내적 동기와 의미감은 행복 경험의 40% 이상을 설명했다(구재선, 서은국, 2011). 또한, 개인 내적 요인들 가운데 자기개념 관련 변수들 역시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2005). 일례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자기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내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자기개념 명확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이기재, 최해림, 2009). 이 결과는 자기에 대한 지식의 내용이나 구조를 통합하여 명료하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느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자기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친다.

### 자기의 통합과 분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자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e.g., Higgins, 1987; Higgins, Bond, Klein, & Strauman, 1986; James, 1890; Linville, 1987).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을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기개념 구조의 통합과 분화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김완일, 2008).

먼저, 자기의 통합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와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 및 자기 지식의 시간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자기개념 명료성(Campbell, Trapnell, Heine, Katz, Lavallo, & Lehman, 1996)은 자기개념의 통합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고(김완일, 2008), 더 나아가 심리적 건강, 불안 및 우울 등과 연관되어 연구되었다(Beck, Steer, Epstein, & Brown, 1990; Brady & Kendall, 1992; Campbell, 1990; Campbell, Chew, & Scratchley, 1991; Campbell et al., 1996).

반면, 다양하고 복잡한 자기개념을 가지는 것을 자기 분화라고 한다. 자기 분화에 대한 대표적 연구에는 Linville(1987)의 자기복잡성 이론이 있다. 자기복잡성은 자기가 얼마나 다

양한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자기측면이란 인간이 다양한 역할, 관계, 상황 등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개념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기의 모습이다(김옥란, 김완일, 2013). Linville(1987)은 자기복잡성 완충 가설, 즉 자기복잡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하고 서로 변별되는 자기측면들이 스트레스 완충역할을 해서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기개념의 분화 정도를 성격특질 형용사 분류 기법을 통해 측정하였다(Linville, 1985, 1987).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된 자기복잡성과 심리적 건강이나 우울 등과 같은 정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옥란, 김완일, 2013; 김완일, 2008).

Linville(1985)의 자기복잡성 완충 가설에 기초한 후속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분화가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자기복잡성과 심리적 건강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Hershberger, 1990), 자기복잡성의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Woolfolk, Novalany, Gara, Allen & Poino, 1995), 오히려 다양한 자기개념이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완일, 2008). 그리고 Linville(1985)의 자기복잡성 모델을 발전시켜 자기개념 분화와 관련된 또 다른 모델인 구획화 모델을 제시한 Showers(1992)의 주장 역시 후속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지지되지 않았다(김완일, 2008). 그리고 자기의 통합과 분화가 심리적 건강과 가지는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Constantino, Wilson, Horowitz, & Pinel 2006), 자기개념 분화는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없으나 자기개념 통합은 심리적 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분화된 자기와 관련된 자기복

잡성과 자기구획화는 심리적 적응 지표와 상관이 없는 반면에, 통합된 자기와 관련된 자기개념 명료성과 자기개념 일치성은 심리적 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국내의 연구에서도 또한, 자기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내적으로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이기재, 최해림, 2009).

####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과 분화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 통합과 분화에 대해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기의 통합 정도를 자기명료성(Campbell, 1990)이나 자기일치성(Donahue, Robins, Roberts, & John, 1993)으로 측정하였고, 자기의 분화 정도를 자기복잡성(Linville, 1985)이나 자기구획화(Showers, 1992)로 측정하였다(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김완일, 2008; 조은영, 임성문,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기초하여 자기의 통합 및 분화를 논하였다.

자기의 공적 측면, 즉 공적 자기는 자기에 대한 일반화된 타인의 관점에 관한 인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공적 자기는 “사람들은 내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반면, 자기의 사적 측면, 즉 사적 자기는 자신의 특질, 상태, 혹은 행동 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적 자기는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정적이다.” 등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요컨대, 공적 자기는 일반화된 타인에 의한 자기 평가이며, 사적 자기는

자기에 의한 자기 평가이다(Triandis, 1989).

Triandis(1989)에 따르면,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는 경험적으로 서로 구분 가능하다. 일례로,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비교문화 연구에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 차이가 발생할 때 공적 자기에 따라 상황을 받아들이고 행동한 반면, 미국인들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wao & Triandis, 1993). 더 나아가 최근의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구분이 심리적인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Sedlovskaya, Purdie-Vaughns, Eibach, LaFrance, Romero-Canyas, & Camp, 2013).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수록, 이들의 자기개념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로 구분되어 도식화되며, 이로 인해 이들의 사회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되는 것을 정상이라고 간주하였던 선행 연구들(e.g., Amiot, De La Sablonniere, Terry, & Smith, 2007; Nippert-Eng, 1996)과 더불어,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통합, 혹은 분화와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를 하나로 인식하는 정도와 별개로 인식하는 정도로 자기의 통합 수준과 분화 수준을 측정하고, 이와 같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통합, 혹은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한국 문화에서는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

아들여진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일관성이 인간 성장의 증거로 여겨지는 반면,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 자기일관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Cross, Gore, & Morris 2003). 한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일관성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h, 2002).

자기일관성과 관련된 문화 차이는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일관성이 가지는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일관성은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효과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자기일관성보다는 사회적 평가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삶의 만족감을 예측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Suh, 2002). 국내의 연구에서도 자기일관성은 주관적 안녕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육근영, 방희정, 옥정, 2006). 요컨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일관성 있는 자기 모습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일관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다중 자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Suh, 2002).

종합하건대, 위의 연구들은 한국 문화에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히려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으로 관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한국 문화 맥락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 통합 및 분화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가 서구 문화 맥락

에서와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지는지, 반대로 분화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지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이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 통합, 혹은 분화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의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김효선, 김옥선, 2010; 김효선, 차운아, 2010;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여성이, 공적인 자기와 사적인 자기가 통합되어 있거나 분화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위에 개관한 바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은 성별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들에서는 성차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연구들에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Haller & Hadler, 2006),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Wood, Rhodes, & Whelan, 198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이경란, 2006)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명소 등, 2003; 유경, 이주일, 강연욱, 박근석, 2009; 차경호, 1999). 그러나 위와는 다르게, 여성보다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 혹은 그 하위요소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43-102세의 성인 2,529명을 대상으로 한 Koo, Rie와 Park(2004)의 연구 결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적은 정적 정서와 더 많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미주와 방희정(2012)에 따르면, 부정 정서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적 정서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인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김미주, 방희정, 2012; 고영남, 2011;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차경호, 1999). 다른 한편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동시에 부정적인 정서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Diener, 1984; Diener & Ryan, 2009),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Cameron, 1995; Campbell, Converse, Rodger, 1976; Diener et. al., 1999; Michalos, 1991).

선행 연구들에서 여성의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수준이 주관적 안녕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직접적으로 다룬 바는 없으나, 다중역할 갈등 수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다. 다중역할이란 일반적으로 일의 영역과 가족의 영역에서 수행하게 되는 이중역할을 의미한다(최윤정, 김계현, 2009).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다중역할을 수

행하면서 역할 간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은 높으며 일-가정 균형감은 낮았다(김신희, 양은주, 2012; 이주일, 유경, 2010). 또한,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다중역할 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정생활 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 및 여가생활 만족도 수준은 낮았다(가영희, 2006; 장재운, 김혜숙, 2003). 더불어, 남성의 경우 다중역할 갈등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이나 직무 관여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여성의 삶의 만족과 직무 관여도는 다중역할 갈등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운, 김혜숙, 2003). 위와 같은 결과는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과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 간의 갈등이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간극이 남성보다 특히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종합하건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그 하위 요소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어느 정도 같거나 다른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들 역시 일관되지 않다. 보다 중요하게,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혹은 분화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연구는 없었으며, 다중역할 갈등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간극이 커질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저하될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개관한 일련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의 분화보다는 통합이 주관적 안

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 문화 맥락의 특성, 즉 개인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Cross et. al., 2003; Suh, 2002)을 고려할 때, 사적 자기와 확연히 구분되는 공적 자기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적응적이며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사이의 통합이 서구 문화에서 관찰된 것과는 다르게 주관적 안녕감과 그다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분화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한국 여성들의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 문제와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가설:**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혹은 덜 분화되어 있을수록)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 것이다.

## 방 법

### 예비 연구

본 예비 연구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과 분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특질 형용사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즉, 이

예비 연구를 통하여 한국 문화 맥락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찾고자 하였다.

Anderson(1968)은 연구 참가자들로 하여금 555개의 성격 특질 단어들을 호감도(likableness)와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로서의 의미가 어느 정도 명확한가(meaningfulness)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555개 단어 중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로서의 의미가 명확한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호감도를 가진 성격 특질 단어 200개를 별도로 표시하였다. 이 200개의 단어들 가운데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 64개를 제1연구자가 선택하여 사회심리학 교수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번역하였다. 한 단어가 한글로는 복수의 서로 다른 뜻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총 96개의 한글 형용사들이 산출되었다. 번역된 형용사들을 32문항씩 3개의 목록으로 무선적으로 나누어 예비 연구를 위한 세 개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예비 연구는 서베이 몽키(Survey Monkey, 1999)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연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는 학부 재학생들 및 휴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전체 연구 참가자의 수는 총 77명(모두 여성)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17세( $SD = 2.59$ )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각 특질 형용사가 사람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지 5점 척도(1: 전혀 적절하지 않다, 5: 매우 적절하다)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평정치 평균이 5점 척도의 중간 값인 3점 이상인 형용사들을 선택한 결과, '잘 잊어버리는', '설득력 있는'과 같은 단 두 개의 형용사들을 제외한 94개의 형용사들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3점 이상인 형용사들을 선택한 이유는 평정치 평균이 척도 중앙값 이하

인 형용사들은 본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계획했던 대학생들의 기준에서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 본 연구

### 연구 참가자

4년제 대학교 교내 게시판과 대학생 커뮤니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에브리타임팀, 2009)에 게시된 연구 참가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여성 14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거주지 분포는 서울 95명, 경기도 37명, 인천 5명 및 미응답 10명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만 27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0.67세( $SD=2.01$ )였다. 연구 절차를 모두 마친 연구 참가자들은 사례로 현금 3천원을 받았다.

### 측정도구

#### 자기의 통합과 분화 측정 과제

Sedlovskaya 등(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과 분화를 측정하는 과제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Sedlovskaya 등(2013)에서는 공적 자기 도식과 사적 자기 도식을 나누기 위해 성격 형용사 구분 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형용사를, 해당 형용사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중 어느 모습을 더 잘 표현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Sedlovskaya 등(2013)은 이 과제에서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잘 구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반응시간이 길수록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잘 구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과제에는 제시되는 형용사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모두에 해당되거나,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가운데 어느 측면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타당한 응답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dlovskaya 등(2013)의 과제에 기반을 두되, 제시되는 형용사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모두를 표현한다는 반응과 두 자기 측면 중 어느 쪽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수정하였다. 과제 구성에는 실험 프로그램인 Paradigm(Perception Research Systems Inc., 2007)을 사용하였다.

과제는 크게 연습 시행과 본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연습 시행의 목적은 연구 참가자들이 판단과제에서 사용되는 숫자 키와 그 의미를 학습하여 본 시행에서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연습 시행에서는 ‘공적 자기’, ‘사적 자기’, ‘둘 다 표현함’, ‘어느 쪽도 표현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들이 각 10번씩 무선적으로 화면에 제시되었고, 연구 참가자들은 각 반응에 적절한 숫자 키를 누르는 연습을 하였다(1: 공적 자기, 2: 사적 자기, 3: 둘 다 표현함, 5: 어느 쪽도 표현하지 않음).

본 시행에서는 예비연구에서 선정되었던 94개의 특질 형용사들에 더하여 박혜경(2011) 및 Lee, Park와 Uhlemann(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격 특질 형용사 33개를 더한 총 127개의 형용사들이 하나씩 무선적으로 화면에 제시되었다.<sup>1)</sup> 연구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 중앙에 제

1) 예비연구를 통해 선택된 형용사 이외에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형용사 33개를 추가로 포함시킨 이유는 좀 더 다양한 특질의 형용사를 제시하여 측정의 타당도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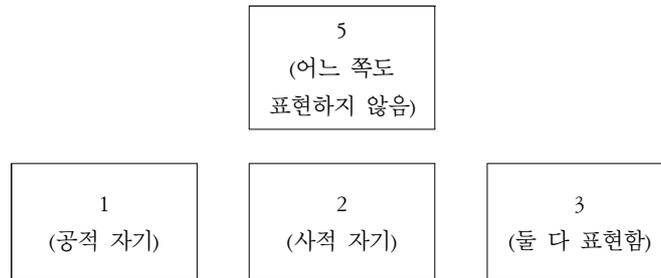


그림 1.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과 분화 측정과제에서 사용된 응답 숫자판 배열

시된 형용사가 자기의 공적 측면을 표현하거나 사적 측면을 표현하는지, 혹은 둘 다 표현하거나 어느 쪽도 표현하지 않는지 판단을 내리고, 키보드 우측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판의 숫자 네 개 중 하나는 누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판단을 표현하였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각각의 형용사에 대한 네 가지 가능한 응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반응하였다. 이러한 응답을 위해 사용된 숫자판 배열은 그림 1과 같았다. 이때 각 형용사의 제시부터 반응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측정되었다. 그리고 각 형용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 주의초점 +가 500ms동안 제시되고 자동으로 사라졌다.

127개의 형용사를 연속적으로 분류하는 과제가 연구 참가자에게 피로감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각 63번의 시행과 64번의 시행으로 구성된 두 개의 블록으로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블록이 끝나고 연구 참가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휴식을 취한 후 두 번째 블록을 실시하였다. 두 블록의 제시 순서는 연구 참가자들 간에 상쇄평형화 되었다.

#### 주관적 안녕감 척도

주관적 안녕감은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에 대한 만족도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차경호(2004)가 번역한 것과 Watson, Clark 및 Tellegen(1988)이 제작한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를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역한 것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삶에 대한 만족도 척도는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PANAS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분을 ‘재미있는’, ‘힘찬’ 등의 정적 정서 단어 10개와 ‘괴로운’, ‘초조한’ 등의 부정 정서 단어 10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평정은 5점 척도(1: 전혀 느끼지 않는다, 5: 매우 많이 느낀다) 상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적 정서 수준이 높고 부정 정서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 주관적 안녕감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삶에 대한 만족도, 정적 정서, 역채점한 부정 정서 값을 z-score로 변환한 후 평균을 구하였다. 차경호(2004)의 연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5였으며,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PANAS의 정적, 부정 정서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77과 .84였다. 본 연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0이었으며, 정적,

부적 정서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77과 .82였다.

###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통계적인 통제를 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현재 거주지, 직업, 최종 학력, 부모의 직업과 최종 학력 및 월평균 가계 소득을 측정하였다.

### 연구절차

실험 프로그램인 Paradigm이 설치된 컴퓨터가 있는 연구실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가자가 연구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먼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가의 자율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가자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난 후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형용사 판단 과제에 앞서 과제 수행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습 시행을 하였으며, 이후 본 시행에 참여하였다. 형용사 판단 과제 후 연구 참가자들은 주관적 안녕감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에 답하였다. 연구 참가자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 연구의 목적에 대한 사후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현금 3천원을 제공하였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된 정도 및 분화된 정도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용사 판단 과제에서 총 127개의 성격 특질 형용사들을 각각 공적 자기, 사적

자기 및 통합된 자기(즉,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모두에 해당)로 분류하는 데에 소요된 평균 시간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공적 자기, 사적 자기 및 통합된 자기로 분류된 형용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먼저, 통합된 자기 반응시간 및 분화된 자기 반응시간 지표를 산출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통합자기 반응시간 지표는 '둘 다 표현함'으로 분류된 형용사들을 그와 같이 분류하는 데에 소요되었던 평균 시간으로 산출되었다. 분화자기 반응시간 지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로 각각 분류된 형용사들을 그와 같이 분류하는 데에 소요된 평균 시간을 구함으로써 산출되었다. 통합자기 반응시간은 짧을수록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서로 통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분화자기 반응시간 역시 짧을수록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서로 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합자기 비율은 '둘 다 해당됨'을 선택한 횟수를 전체 형용사 수에서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선택한 횟수를 제외한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즉, 통합자기 비율 = '둘 다 해당됨' 반응 횟수 / (127 -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음' 반응 횟수)와 같이 계산되었다. 분화자기 비율은 공적 자기 반응 횟수와 사적 자기 반응 횟수를 합친 값을 전체 형용사 수에서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음'으로 반응한 횟수를 제외한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즉, 분화자기 비율 = (공적 자기 반응 횟수 + 사적 자기 반응 횟수) / (127 -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음' 반응 횟수)와 같이 계산되었다.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정적 정서 및 부적 정

서로 구성된다(박경혜, 2004; 허현정, 2004). 그런데 최근 들어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가 서로 독립된 요소들이며,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Busseri & Sadava, 2011; Diener, Scollon, & Lucas, 2009),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전체에 대한 결과와 주관적 안녕감의 세 가지 하위 요인별 결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참가자의 연령과 학력, 부모의 학력과 직업 유무, 그리고 월 평균 가계소득을 통제한 뒤, 자기의 통합 및 분화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예측 변수로 설정하고 주관적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를 각각 준거변수로 설정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과 분화 측정 과제에서 개인의 반응시간 평균이 표본 전체의 평균에서  $\pm 2.5SD$  이상 벗어난 연구 참가자들을 제외(류지현, 2010; 한보연, 박예지, 배경란, 임동선, 2014)한 결과, 전체 148명 중 3명이 제외되었다. 그 결과 총 145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 주요 변수들의 평균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r = -.28, p < .01$ ). 즉, 통합자기 반응에 소요된 시간이 짧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의 통합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통합자기 반응시간은 삶에 대한 만족도( $r = -.26, p < .01$ ) 및 정적 정서( $r = -.28, p < .01$ )와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부정 정서와의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r = .02, n.s.$ ).

다음으로,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관찰할 수 없었다( $r = -.12, n.s.$ ).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척도별로 살펴본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 $r = -.10, n.s.$ ), 정적 정서( $r = -.14, n.s.$ ) 및 부정 정서( $r = .01, n.s.$ )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관찰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통합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r = .31, p < .01$ ). 이 결과로부터 자기개념에서 통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통합자기 비율은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정적 정서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 $r = .24, p < .01$ 와  $r = .17, p < .05$ ), 그리고 부정 정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24, p < .01$ ). 분화자기 비율은 통합자기 비율과 정확하게 반비례하므로, 분화자기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문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 위계적 회귀분석

위의 단순상관분석을 통하여 공적 자기와

표 1.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N=145)

	1	2	3	4	5	6	7	8
1 주관적 안녕감	1							
2 삶에 대한 만족도	.86**	1						
3 정적 정서	.57**	.35**	1					
4 부적 정서	-.60**	-.40**	.19*	1				
5 통합자기 반응시간	-.28**	-.27**	-.28**	.02	1			
6 분화자기 반응시간	-.12	-.10	-.14	.01	.48**	1		
7 통합자기 비율	.31**	.24**	.17*	-.24**	-.18*	.16*	1	
8 분화자기 비율	-.31**	-.24**	-.16	.24**	.17*	-.17*	-1.00**	1
M	-.01	4.16	2.95	2.66	2578.87	3440.01	.48	.52
SD	.67	1.17	.61	.74	950.68	1562.64	.17	.16

\*\* $p < .01$ , \* $p < .05$ .

(1: 주관적 안녕감, 2: 삶에 대한 만족도, 3: 정적 정서, 4: 부적 정서, 5: 통합자기 반응시간, 6: 분화자기 반응시간, 7: 통합자기 비율, 8: 분화자기 비율)

사적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주관적 안녕감 및 그 하위 요인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모형 1에는 연구 참가자의 연령과 학력, 부모의 학력과 직업 유무, 그리고 월 평균 가계소득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는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투입되었을 때 모형이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이 어느 정도 증가

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표들은 준거변수별로 제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들 중 유의미한 결과들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자기의 통합이 주관적 안녕감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통합자기 반응시간을 예측변수로 설정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연령, 학력 및 부모의 학력과 직업 유무, 그리고 월 평균 가계소득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통합자기 반응시간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표 2.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변수	B	S.E.	$\beta$	R <sup>2</sup>	$\Delta R^2$
모형1	나이	-.01	.03	-.02	.06	.06
	본인학력	.11	.12	.09		
	부친학력	.04	.07	.06		
	모친학력	-.07	.06	-.12		
	부모직업	<.01	.06	.01		
	소득	.05	.02	.19*		
모형2	나이	<-.01	.03	-.004	.14	.08**
	본인학력	.05	.12	.04		
	부친학력	.01	.06	.01		
	모친학력	-.04	.06	-.07		
	부모직업	7.41	.06	.001		
	소득	.05	.02	.18*		
	통합자기 반응시간	-1.91	6.00	-.28**		

\*\*\* $p < .001$ , \*\* $p < .01$ , \* $p < .05$ .

표 3. 통합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변수	B	S.E.	$\beta$	R <sup>2</sup>	$\Delta R^2$
모형1	나이	-.01	.03	-.02	.05	.05
	본인학력	.11	.12	.09		
	부친학력	.04	.07	.06		
	모친학력	-.07	.06	-.12		
	부모직업	<.01	.06	.01		
	소득	.05	.02	.19*		
모형2	나이	-.02	.03	-.06	.13	.07**
	본인학력	.11	.11	.09		
	부친학력	.07	.06	.11		
	모친학력	-.10	.06	-.16		
	부모직업	-.01	.05	-.01		
	소득	.06	.02	.23*		
	통합자기 비율	1.38	.35	.34***		

\*\*\* $p < .001$ , \*\* $p < .01$ , \* $p < .05$ .

같이,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합자기 반응시간은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8, p < .01$ ). 이 결과는 통합자기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즉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통합이 잘 이루어져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의 통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통합자기 비율을 예측변수로 설정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연령, 학력 및 부모의 학력과 직업 유무, 그리고 월 평균 가계소득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통합자기 비율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합자기 비율은 주관적 안녕

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4, p < .001$ ). 이 결과는 통합자기 비율이 높을수록, 즉 자기개념 전체에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정적 정서.** 자기의 통합이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정적 정서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통합자기 반응시간을 예측변수로 설정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연령, 학력 및 부모의 학력과 직업 유무, 그리고 월 평균 가계소득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통합자기 반응시간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표 4.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정적 정서의 관계

	변수	B	S.E.	$\beta$	$R^2$	$\Delta R^2$
모형1	나이	-.01	.02	-.06	.08	.08
	본인학력	.13	.11	.12		
	부친학력	.16	.06	.29**		
	모친학력	-.11	.06	-.20		
	부모직업	.01	.05	.01		
	소득	.02	.02	.09		
모형2	나이	-.01	.02	-.05	.14	.06**
	본인학력	.09	.10	.08		
	부친학력	.14	.06	.24*		
	모친학력	-.08	.06	-.16		
	부모직업	<.01	.05	.01		
	소득	.02	.02	.08		
	통합자기 반응시간	-1.55	5.35	-.26**		

\*\*\* $p < .001$ , \*\* $p < .01$ , \* $p < .05$ .

통합자기 반응시간은 정적 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6, p < .01$ ). 이 결과는 통합자기 반응시간이 빠를수록, 즉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통합이 잘 이루어져 있을수록 정적 정서 경험이 빈번해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의 통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통합자기 비율을 예측변수로 설정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연령, 학력 및 부모의 학력과 직업 유무, 그리고 월 평균 가계소득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통합자기 비율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통합자기 비율은 정적 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2,$

$p < .05$ ). 이 결과는 통합자기 비율이 높을수록, 즉 자기개념 전체에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정적 정서 경험이 빈번해짐을 의미한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즉, 통합자기 반응시간이 빠를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 결과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되어

표 5. 통합자기 비율과 정적 정서의 관계

	변수	B	S.E.	$\beta$	R <sup>2</sup>	$\Delta R^2$
모형1	나이	-.01	.02	-.06	.08	.08
	본인학력	.13	.11	.12		
	부친학력	.16	.06	.29**		
	모친학력	-.11	.06	-.20		
	부모직업	.01	.05	.01		
	소득	.02	.02	.09		
모형2	나이	-.02	.02	-.09	.13	.05*
	본인학력	.13	.10	.12		
	부친학력	.18	.06	.32**		
	모친학력	-.12	.06	-.23*		
	부모직업	<-.01	.05	<-.01		
	소득	.03	.02	.11		
	통합자기 비율	.82	.32	.22*		

\*\*\* $p < .001, **p < .01, *p < .05$ .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합자기 반응시간은 주관적 안녕감의 세 하위 요인들 가운데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정적 정서 경험과도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삶에 대해 보다 만족하며 정적 정서 경험을 빈번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통합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자기개념에서 통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통합자기 비율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들 가운데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정적 정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부적 정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통합을 나타내는 지표들인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통합자기 비율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주관적 안녕감 전제와 주관적 안녕감의 한 구성요소인 정적 정서 경험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지며, 분화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김완일, 김재환, 1992; 문정하, 2007; Campbell et al., 1996; Constantino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 통합 및 분화를 자기 복잡성, 자기개념 명확성 등으로 측정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고현석 등, 2012; 김옥란, 김완일, 2013; 김완일, 2003, 2008, 2012; 송보라, 이기학, 2009; 이기재, 최해림, 2009)과는 달리,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정도로 측정하였다.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한국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첫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여성에게 다중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우리사회에서 자기의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 간의 통합이나 분화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 통합과 분화 판단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가외의 요인들을 측정하여 통제하지 못하였다. 먼저, 과제에 포함된 특질 형용사들의 개인적 중요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만약 연구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특질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질들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응했다면, 빠른 반응 속도는 자기의 통합이나 분화의 지표가 되는 동시에 특질의 개인적 중요도까지 반영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특질의 개인적 중요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덜 중요한 특질들에 비하여 더 중요한 특질들과 관련된 자기 통합과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시된 특질 형용사들이 연구 참가자에게 익숙할 때 반응이 빨라지고, 덜 익숙할 때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등, 특질 형용사의 친숙도가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특질 형용사들의 개인적 친숙도를 측정하여 통제된 뒤 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준거변수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와 예측변수인 통합자기 반응시간, 통합자기 반응비율, 분화 자기 반응시간 및 분화자기 반응비율 간의 단순상관계수들 가운데 .2 수준인 값들이 일부 관찰되었다. 이는 작은 효과크기에 해당되므로(Cohen, 1988), 이러한 결과는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가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직 가정과 사회에서 다중역할을 요구받는 연령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간극이 커질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일반화 가능한지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의 삶의 질이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들(Beck et al., 1990; Brady & Kendall, 1992; 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1; Campbell et al., 1996)과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자기의 통합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이 주관적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차이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사회인의 모습을 갖출 것이 더 강하게

기대되는데,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차이가 커짐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이 더 크게 저하되는지 검증한다면 흥미로운 것이다.

또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이나 분화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나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진정성(authenticity)이 주관적 안녕감에 기여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이향숙, 신희천, 2011)에 비추어,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통합이 진정성 수준을 높이고, 그로 인하여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될 가능성을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문화성향이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는 개인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얼굴과 자기만의 얼굴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시되므로,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두 측면이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을 크게 저하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관된 자기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일조하므로(Suh, 2002),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분화되어 있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과 가지는 관계를 개인의 문화성향이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흥미로운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가영희 (2006). 성인의 직장-가정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심리학회지: 여성, 11, 163-186.
- 고영남 (201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동료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7, 246-269.
-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825-846.
- 구재선, 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1-18.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복합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143-166.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2). 가족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 279-300.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 1-33.
- 김미주, 방희정 (2012). 남녀 중학생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애착의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 597-621.
- 김신희, 양은주 (2012). 유자녀 직장여성의 다중역할 경험의 질에 따른 군집별 심리적 및 환경적 특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 73-94.
- 김옥란, 김완일 (2013). 군 병사의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 복합적 자아해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25, 699-722.
- 김완일 (2003). 자기분화와 의미차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633-650.
- 김완일 (2008). 자기개념의 분화와 통합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 상담학연구, 9, 1043-1061.
- 김완일 (2012). 군 병사의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자기조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 3131-3149.
- 김완일, 김재환 (1992). 대학생의 자기 긍정감, 자기 복잡성 및 우울 성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학연구, 10, 249-270.
- 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61-70.
- 김혜원, 김명소 (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 27-41.
- 김효선, 김옥선 (2010). 다중역할의 상호향상효과: 일-가정 영역 간 자원의 긍정적 전이에 관한 분석. 경영학연구, 39, 375-407.
- 김효선, 차운아 (2010). 여성 근로자의 개인 및 직장 상황이 일-가족 전이에 미치는 영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4, 69-104.
-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 365-395.
- 뉴스스 (2015.01.2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9\\_0013446307&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9_0013446307&cID=10301&pID=10300)
- 류지현 (2010). PDA의 화면설계 방식 및 과제

- 유형이 반응시간과 사용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6, 71-94.
- 문정하 (2007).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경혜 (2004).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요인: 개인내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선영 (2005). 대학생들의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서울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 71-92.
- 박혜경 (2011). 허위 독특성 편향의 문화차: 문화와 자기고양에 대한 재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127-142.
- 송보라, 이기학 (2009).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관계에서의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73-88.
- 유경, 이주일, 강연욱, 박군석 (2009). 노년기 정서 경험의 변화와 주관적 안녕감: 종단 연구 분석. *한국노년학회지*, 29, 729-742.
- 육근영, 방희정, 옥정 (2006). 자아 일관성과 주관적 안녕감: 자아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 47-65.
- 이경란 (2006). 정서표현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기재, 최해림 (2009). 분리-개별화, 자기개념 명확성 및 비합리적 신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0, 81-99.
- 이재신, 이지혜 (2011). 교사의 자율성, 낙관성, 교수몰입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교육연구*, 28, 66-90.
- 이주일, 유경 (2010). 직장-가정 갈등의 세대차이와 직장-가정 갈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장 여성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 471-501.
- 이향숙, 신희천 (2011). 진실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2, 1561-1577.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935-946.
- 장재윤, 김혜숙 (2003). 직장-가정 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23-42.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 61-94.
- 조은영, 임성문 (2012). 자아해석과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자기복잡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493-519.
- 중부매일 (2015.01.28).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270>
-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서양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 193-216.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 321-337.
- 최윤정, 김계현 (2010). 대졸 기혼 직장여성의 개인특성, 환경적지지 및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완화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 1049-1073.

- 한보연, 박예지, 배경란, 임동선 (2014). 이중언어사용자의 표음문자 및 표의문자 반응시간 차이. *특수교육*, 13, 111-125.
- 허현정 (2004).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열등의식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Amiot, C. E., De La Sablonniere, R., Terry, D. J., & Smith, J. R. (2007). Integration of social identities in the self: Toward a cognitive-developmental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364-388.
- Anderson, N. H. (1968). Likableness Ratings of 555 Personality-trait wo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72-279.
- Beck, A. T., Steer, R. A., Epstein, N., & Brown, G. (1990). Beck self-concept test. *Psychological Assessment*, 2, 191-197.
- Brady, E. U., & Kendall, P. C. (1992). Comorbidity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Bulletin*, 111, 244-255.
- Busseri, M. A., & Sadava, S. W. (2011). A review of the tripartit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Implications for conceptualization, operationalization, analysis, and syn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 290-314.
- Cameron, P. (1995). Mood as an indicator of happiness : Age, sex, social class, and situ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ist*, 31, 117-124.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83-549.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 1467-6494.
-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 473-505.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nstantino, M. J., Wilson, K. R., Horowitz, L. M., & Pinel, E. C. (2006). The Direct and Stress-Buffering Effect of Self-organiz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 333-360.
- Cross, S. E., Gore, J. S., & Morris, M. L. (2003).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elf-concept consistency,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933-944.
- Csikszentmihalyi, M., & Seligman, M. E.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51-864.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Larsen, R. J. (1984). Temporal stability and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of affective, behavioral, and cogni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871-883.
- Diener, E., & Ryan, K. (2009). Subjective well-being: A general overview.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9, 391-406.
- Diener, E., Scollon, C. N., & Lucas, R. E. (2009).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In *Assessing well-being* (pp. 67-100). Springer Netherlands.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E.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nahue, E. M., Robins, R. W., Roberts, B. W., & John, O. P. (1993). The divided self: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6.
- Fromm, E. (1956). *The art of loving*. New York, NY: Harper.
- Haller, M., & Hadler, M. (2006).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 169-216.
- Hershberger, P. (1990). Self-complexity and health promotion: Promising but premature. *Psychological Reports*, 66, 1207-1216.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theory: A theory relation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5.
- Iwao, S., & Trlandis, H. C. (1993). Validity of auto- and heterostereotypes among Japanese and American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428-444.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 Koo, J., Rie, J., & Park, K. (2004).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ffect and subjective well-being.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4, 268-270.
- Lee, D. Y., Park, S. H., & Uhlemann, M. R. (2002). Self and other ratings of Canadian and Korean group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their clients. *Psychological Reports*, 90, 667-676.
- Lin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Michalos, A. C. (1991). *Global on student well-being: Vol. 1.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New York: Springer-Verlag.
- Nippert-Eng, C. E. (1996). *Home and work: Negotiating boundaries through everyday lif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ishi, S., & Diener, E. (2001). Goal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674-1682.
- Sedlovskaya, A., Purdie-Vaughns, V., Eibach, R. P., LaFrance, M., Romero-Canyas, R., & Camp, N. P. (2013). Internalizing the closet: Concealment heightens the cognitiv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695-715.
- Sheldon, K. M., & King, L. (2001).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56, 216-217.
- Showers, C. (1992). Compartmental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knowledge: Keeping bad apples out of the bun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036-1049.
- Srivastava, A., Locke, E. A., & Bartol, K. M. (2001). Money and Subjective Well-Being: It's Not the Money, It's the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959-971.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 - 1391.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ood, W., Rhodes, N., & Whelan, M. (1989). Sex difference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 249-264.
- Woolfolk, R. L., Novalany, J., Gara, M. A., Allen, L. A., & Polino, M. (1995). Self-complexity,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form and content within the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08-1120.

1차원고접수 : 2016. 10. 24.  
심사통과접수 : 2017. 03. 13.  
최종원고접수 : 2017. 03. 18.

## The Relation between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lve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Women

Jungeun Park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finding out how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lves would relate to subjective well-being in women. A total of 148 women over 18 years old participated. The participants performed an adjective judgment task that was designed to measure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lves, and then completed a subjective well-being scale and a demographic questionnai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 higher level of integ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lves led to a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a more frequent experience of positive emotions whereas a lower level of integ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lves led to a more frequent experience of negative emotions.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self-integ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women are discussed.

*Key words* : self-concept differentiation, self-concept integration, public self, private self, subjective well-being